

축 사

오늘 명원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6회 국제명원차문화대상’ 행사에 우리나라 차문화 발전의 주인공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의 영광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 차문화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긴 고 명원 김미희 보살은 새삼 소개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다례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평생에 걸친 노력과 열정을 통해 한국 차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명원 보살은 많은 노력을 통해 한국의 차문화가 사찰을 중심으로 면면히 전해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해남 대흥사 일지암 복원이 한국 차문화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며 한국 차의 성지로 일지암을 복원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통사찰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해 많은 사찰을 물심양면으로 후원 하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명원 보살의 뜻을 받들어 1995년 재단설립 이후 매년 개최되는 ‘명원국제차문화대상’은 우리 차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와 대중적인 보급 그리고 우리 전통차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차문화를 아끼고 발전시켜온 명원재단 2대 김의정 이사장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10월 문화의 달에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훈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차가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우리 차의 우수성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차문화속에 깃든 전통문화와 불교사상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차문화와 그 속에 깃든 불교사상이 인류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의 영광을 받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명원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11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